

2026년 06월 04일

TESLA Briefing

테슬라 뉴스를 한눈에 빠르게

teslabriefing.com

2026년 06월 04일 · 노이즈 없는 테슬라 브리핑 · 오늘의 15건

STOCK · 주가·실적

01 시킹알파 "테슬라 중국산 EV 5월 판매 초기 회복 신호"

시킹알파(Seeking Alpha)가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 5월 판매량이 급증하며 중국 내수 시장의 '초기 회복(initial recovery)'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델3·모델Y 5월 판매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시킹알파는 '초기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판매 반등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추세 전환 가능성을 강조했다. CNBC의 '약 40% 급등' 보도와 함께 복수 1차 매체에서 동일한 방향성이 확인됐다.

중국 내수 회복의 배경으로는 2025년 하반기 불매운동 반발 심리 완화, 모델Y 주니퍼 신형의 경쟁력 강화,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 보조금 연장 효과가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Seeking Alpha · 06/03 18:26 · [원문 보기](#) →

02 테슬라 중국산 전기차 5월 판매 40% 급등 — 내수 시장 회복

CNBC가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 5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수 시장 회복이 뚜렷해지며 테슬라 Q2 인도량 서프라이즈 기대감을 높이는 핵심 재료다.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모델3·모델Y를 생산해 중국 내수 판매와 유럽·아시아 수출에 활용한다. 중국 5월 판매 40% 급등은 2025년 하반기 불매운동 우려와 BYD 경쟁 심화로 형성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판매 급등 배경으로는 모델Y 주니퍼·모델3 하이랜드 업데이트 모델의 높은 경쟁력, 중국 정부의 내수 진작 보조금 정책, 5월 성수기 효과가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CNBC · 06/03 17:16 · [원문 보기](#) →

03 시트론 리서치 앤드루 레프트, 테슬라·엔비디아 주가 조작 형사 유죄

공매도 투자자 앤드루 레프트(Andrew Left)와 그가 운영하는 시트론 리서치(Citron Research)가 테슬라(TSLA)·엔비디아(NVDA) 등 주요 종목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약 2000만 달러(한화 약 27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형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레프트의 수법은 특정 종목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를 미리 공개 배포해 주가를 끌어내린 뒤, 사전에 구축해둔 공매도 포지션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판결이 민사가 아닌 형사 유죄 확정이라는 점에서, 공매도 보고서 배포 관행에 중요한 법적 경계선이 그어졌다.

테슬라는 레프트가 수차례 파격적으로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며 집중 공략했던 핵심 표적 중 하나였다.

— Parameter.io · 06/02 18:52 · [원문 보기](#) →

PRODUCT · 차량·에너지·옵티머스

04 테슬라 중국 5월 판매 2026년 최고치 경신

테슬라 전문 매체 '낫 어 테슬라 앱(Not a Tesla App)'이 테슬라의 중국 5월 판매량이 2026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며 대규모 성장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확인된 상하이 기가팩토리 역대 최대 납품 데이터와도 부합하는 결과다.

중국을 테슬라 전체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2026년 들어 BYD·니오 등 현지 경쟁사의 공세가 거세졌음에도 5월 판매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것은 모델Y 주니퍼·모델3 하이랜드의 경쟁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다.

같은 시기 유럽 시장에서도 5월 신규 등록이 대폭 증가하며 글로벌 수요 회복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중국 최고치 + 유럽 급등의 조합은 테슬라의 Q2 글로벌 인도량이 이전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Not a Tesla App · 06/03 01:13 · [원문 보기](#) →

FSD · 자율·로보택시

05 일렉트렉 단독 — 테슬라 FSD 계약서에 '감독 필요' 조항 소급 삽입

일렉트렉(Electrek)이 테슬라가 고객들이 수년 전 서명한 FSD(Full Self-Driving) 구매 계약서에 '감독 필요(supervised)'라는 문구를 소급 추가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원본 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던 이 문구가 추가됐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원본 문서 자체가 열람 불가 상태로 변경됐다.

이 보도의 핵심은 계약 소급 변경이다. 고객이 FSD를 구매할 당시의 계약서에는 '감독(supervised)'이라는 조건이 없었다. 그런데 테슬라가 소비자 계약을 소급해서 변경했다면, 이는 계약법 위반·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지를 동시에 제기한다.

배경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 'FSD'가 실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소비자 소송에 다수 직면해 있다.

— Electrek · 06/03 21:54 · [원문 보기](#) →

06 중국 FSD 소송 확산에 로봇·밸류에이션 이중 리스크 급부상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가 테슬라를 압박하는 두 가지 핵심 리스크를 최신 분석으로 조명했다. 중국 FSD 소송 확산과 로봇 부문 경쟁 심화가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이중 부담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테슬라는 이미 중국에서 FSD 브랜드명을 변경하는 선제 대응을 취했지만, 소비자 집단소송은 이후에도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명칭이 실제 기술 수준을 초과 표현했다는 핵심 주장은 명칭 변경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리스크는 로봇 시장 경쟁이다. 오픈AI의 로봇 사업 공식 출범, 엔비디아의 Isaac 플랫폼 강화, BYD·화웨이의 자율주행 로봇 투자 확대가 테슬라 옵티머스과 FSD에 부여됐던 선점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논거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 Yahoo Finance · 06/03 16:11 · [원문 보기](#) →

07 로이터 심층 단독 — 테슬라 자율주행 머신의 내부를 해부하다

세계 최대 통신사 로이터(Reuters)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심층 탐사 기사를 단독 공개했다. 제목 'Inside Tesla's self-driving machine'은 FSD 기술의 내부 구조, 개발 철학, 시장 경쟁력을 집중 조명하는 취재물이다.

테슬라 FSD(Full Self-Driving)는 카메라 8개와 신경망 처리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비전 온리(Vision Only)' 방식을 채택한다. 라이다·레이더 없이 온보드 AI 칩(HW4)이 실시간으로 환경을 인식·예측해 주행 판단을 내리는 구조다. 이는 라이다 기반의 웨이모 등 경쟁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로이터급 1차 매체의 탐사 보도는 기술적 강점과 동시에 규제·안전 리스크도 짚어낼 가능성이 높다.

— Reuters · 06/03 01:34 · [원문 보기](#) →

08 전직 테슬라 직원들 "FSD, 머스크 주장에 한참 못 미쳐"

테크스팟(TechSpot)이 다수의 테슬라 전직 개발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FSD(완전자율주행) 능력에 관한 일론 머스크의 공개 발언이 실제 내부 개발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보도했다.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FSD는 특정 도로 환경·날씨·엣지 케이스에서 여전히 심각한 한계를 보이며, 머스크가 수년간 공언해온 "완전 자율주행 달성 임박" 발언과 실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부는 사내에서도 마케팅 표현이 기술 현실을 앞서 간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보도는 테슬라가 FSD v14를 통해 획기적 성능 향상을 공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FSD 관련 소비자 소송이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직 직원의 증언은 법적 리스크를 높이는 재료로도 해석된다.

— TechSpot · 06/02 20:54 · [원문 보기](#) →

09 중국 FSD 소송 확산 + 로봇틱스 경쟁 — 테슬라 밸류에이션 이중 압박

야후 파이낸스가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위협하는 두 가지 핵심 변수를 분석했다. 중국에서 진행 중인 FSD 관련 집단소송과, 로봇틱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심화다.

중국 소비자들은 FSD(완전자율주행) 기능이 광고·공시 내용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테슬라는 이미 중국 내 FSD 브랜드명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선제 대응에 나섰다.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압박은 로봇틱스 경쟁이다. BYD,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자율주행·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테슬라를 빠르게 추격하면서, FSD와 옵티머스에 부여됐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Yahoo Finance · 06/02 13:27 · [원문 보기](#) →

ELON · 일론 소식

10 웨드부시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 확률 80% 돌파"

월가에서 테슬라 강세 분석으로 가장 잘 알려진 웨드부시 증권(Wedbush Securities)이 2027년까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평가한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했다.

웨드부시의 80% 수치가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 희망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이다. 웨드부시는 스페이스X의 수정 S-1 공시 제출, 일론 머스크의 최근 공개 발언, 테슬라 이사회 구성 변화 등 구체적 징후를 근거로 합병 확률을 상향 조정했다. 이전까지 50~60%대로 제시하던 웨드부시가 80%를 넘어섰다는 것은 실질적인 진전 신호로 해석된다. 합병 구조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합병 비율이다.

— Yahoo Finance · 06/03 21:45 · [원문 보기](#) →

11 야후파이낸스 "드디어 머스크 프리미엄의 벤치마크를 찾았다"

야후파이낸스(Yahoo Finance)가 테슬라 투자자들이 마침내 '머스크 프리미엄(Musk Premium)'을 정량화할 벤치마크를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머스크 프리미엄'이란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비전·개인 브랜드가 테슬라 주가에 더해 주는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의미한다. 그간 이 프리미엄은 정확한 수치 산출이 어려웠지만, 스페이스X IPO가 가시화되면서 비교 기준이 생기게 됐다.

스페이스X가 독립 상장 또는 테슬라와의 합병을 통해 공개 시장에 데뷔하면, 머스크가 직접 주도하는 두 기업 중 어디에 더 많은 '머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는지를 시장이 스스로 평가하게 된다. 이는 테슬라 주가에서 '전기차 펀더멘털 가치'와 '머스크 비전 프리미엄'을 분리해 볼 수 있는 최초의 시장 기준점이 된다.

— Yahoo Finance · 06/03 19:01 · [원문 보기](#) →

12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 가능성은? — 최신 시나리오 분석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가 테슬라(TSLA)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을 심층 분석하며, IPO를 앞두고 이 시나리오가 왜 다시 주목받는지 짚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우주·전기차·AI·에너지 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전례 없는 복합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위성 인터넷), 스타쉽(차세대 로켓), 방산 계약을 테슬라 플랫폼과 결합하면 밸류에이션 논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합병은 양날의 검이다. 스페이스X의 성장 잠재력이 테슬라 주주에게 귀속되는 긍정 시나리오와, 합병 구조에 따른 지분 희석·거버넌스 복잡화 리스크가 공존한다. 특히 머스크가 스페이스X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합병 비율에 따라 기존 테슬라 주주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 Yahoo Finance · 06/03 15:25 · [원문 보기](#) →

13 머스크, 역대급 스페이스X IPO 앞두고 테슬라 합병 검토 중

야후파이낸스가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를 불과 몇 주 앞두고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스페이스X IPO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여기에 테슬라 합병이 맞물릴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막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앞서 보도된 '스페이스X-테슬라 합병 시 머스크에게 1조 달러 보상 패키지 촉발 가능성' 시나리오와도 연결된다.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 이 합병은 양날의 검이다. 스페이스X의 성장 잠재력이 테슬라 주주들에게 돌아온다는 긍정적 시나리오가 있는 반면, 합병 구조에 따라 테슬라 지분 희석이나 거버넌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Yahoo Finance · 06/03 05:20 · [원문 보기](#) →

14 스페이스X·테슬라 합병 시 머스크 1조 달러 보상 패키지 촉발 가능성

야후파이낸스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이 실현될 경우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1조 달러(약 1,400조 원) 규모까지 촉발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합병 시나리오: 비상장사인 스페이스X를 테슬라에 합병하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테슬라 주식으로 전환된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 비율에 따라 그의 테슬라 지분 및 보상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스페이스X의 현 기업가치는 약 1조 8,000억 달러(약 2,430조 원)로 평가된다.

실현 가능성: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은 이사회 의결·주주 승인·규제 심사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이해충돌을 이유로 과거에도 합병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 Yahoo Finance · 06/02 21:31 · [원문 보기](#) →

15 SpaceX 수정 S-1 공시, 테슬라 합병 대형 논쟁 재점화

스페이스X가 수정 S-1 증권신고서를 SEC에 제출하자 월가와 테슬라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스페이스X-테슬라 합병' 가능성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S-1은 미국 기업공개(IPO) 전 단계에서 SEC에 제출하는 핵심 공시 서류다. 스페이스X가 수정 S-1을 제출했다는 것은 기업공개 준비가 상당히 진전됐음을 시사하며, 이 과정에서 독립 IPO 대신 테슬라와의 합병 방식이 선택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병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논리는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문제와 연결된다. 법원이 머스크의 테슬라 임원 보수(560억 달러)를 무효화한 상황에서, 스페이스X 지분 가치를 활용한 합병이 머스크에게 재무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론도 있다.

— Teslarati · 06/02 15:22 · [원문 보기](#) →

S O U R C E S · Reuters / Bloomberg / CNBC / Teslarati / Electrek 등 · 정제: TESLA Briefing · teslabriefing.com